

光日春秋



오덕성
우송대 총장

매년 추석이 다가오면 버스터미널, 기차역, 도로 위에는 들뜬 얼굴로 고향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려진다. 필자도 명절이 되면 서울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느라 급하게 이동하는 귀경객 중 하나였다.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으나 다섯 식구가 한차를 타고 재미있는 가족여행쯤으로 생각하고 출발했지만 대어섯 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고향에도 착할 때가 되면 모두가 지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되곤 했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부모님 댁에 도착하면 몸은 피곤하지만 된 듯 피곤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다시 기운을 얻었다. 매년 아들 가족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던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는 항상 '바쁘고 힘든데 왜 고생하며 올라왔느냐'고 걱정스러운 말만 반복하셨지만, 마음 속으로는 기다리던 아들 내외와 손주를 만나게 되어 기쁜 모습이 역력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피난을 오신 부모님께 명절은 가족 전체가 모이는

추석의 추억

특별한 날이었다. 아들 가족이 오기 전 어머니께서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신 녹두전, 큼직한 만두 등이 차려진 푸짐한 밥상이 매년 추석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요리를 게는 감추듯 짧은 시간에 먹고 일어설 때면 어린 시절 철없는 아들로 돌아간 듯했다.

고생하는 어머니와 아내를 생각해 설거지라도 도우려고 고무장갑을 끼면 아들을 밀어내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들 손에 풀이 묻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엿보였다. 부모님 댁에서 허룻밤을 보낸 뒤 문을 나서는 우리를 배웅하면서 당신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손을 흔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주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겠다'고 매년 결심하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뵈는 것은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병원에 입원중이시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드렸을 때였다.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거臂, 잘 다녀오게'라고 황해도 사투리로 대답해주실 때의 표정에서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드시던 어머니의 모습과 표정이 느껴졌다. 병원에서의 만남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일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의 소천 소식을 듣고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

다'라는 고사성어처럼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매년 명절마다 부모님을 뵈러 올라가고 내려오기를 반복하면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이 송구하다.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오시면서 겪으셨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외울 지경이 되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어드리지 못한 것,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드리지 못한 것 등 잘해드린 기억보다 못해 드린 기억들만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선 '어머니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어머니'라고 뉘네가나마 마음속으로 되뇌이곤 한다.

이제는 내가 그 시절의 어머니 나이가 되어서 추석을 맞아 집에 방문하는 자녀와 손주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내가 준비한 추석 밥상을 맞으며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떠들며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전에 어머니에게 드리지 못했던 감사의 말을 자녀들에게라도 해야겠다.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잘 살아주니 고맙구나'하는 진심 어린 말을 지금, 바로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시간은 우릴 기다려 주지 않기에 추석 명절이 지난 지금이라도 휴대폰을 꺼내어 전화를 한 번 더 걸어 '고맙다' 또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보자. 지금의 전화 한 통이 먼 훗날 빼어난 후회가 되지 않을 테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망설임 이유가 없다.

社說

중대사고 최다 여수산단 기초안전부터 점검을

광주·전남지역 핵심 산업단지이자 중심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국내 산단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산단의 안전 관리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 산단은 매년 크고 작은 사고나 화재, 폭발 등이 끊이지 않아 노동자는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은 화학산업 분야 비중이 큰 까닭에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 산단은 울산 산단과 함께 지방에 위치한 산단으로는 조성된 지 50년이 넘는 노후 산단인 탓에 더욱 더 안전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3건, 사

상자는 33명(사망 12명·부상21명)으로 국내 20개 국가산단 가운데 사상자가 가장 많았다. 여수산단에 이어 사상자가 많은 곳은 울산 미포 22명, 서울 디지털 21명, 온산 18명, 창원 16명 등 순이었다. 사망자 숫자만을 놓고 보면 광양산단도 무려 9명이나 돼 타 지역 산단보다 월등히 많았다. 영암산단 사망자 수는 3명이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판단한 중대사고는 최근 5년간 총 110건이었으며 이중 97%(107건)가 20년 이상 노후산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산단과 영암·광양산단 등은 노후 산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3개 산단을 관리하는 안전전담 인력은 고작 2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안전전담 인력을 충분히 늘리고, 노후 산단임을 고려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요소부터 모든 부분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4년 조사 자료 '5·18 기록물' 광주로 이관해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의 5·18 기록물이 광주로 이관되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에 방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기록물은 5·18진상조사위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기록한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84만 여쪽의 서류와 4.5TB(테라바이트) 분량으로 1980년 5·18 전후 청와대와 국방부, 공수특전여단 등 관련 기관이 생산 보관한 기록물과 미국·일본의 기밀 문서, 신군부 등 가해자와 피해자 1158명의 민간인 기록이 포함돼 있다. 조사 과정에서 한계점을 노출한 5·18진상조사위의 자료이재관 정부 차원의 첫 공식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방대한 이 자료를 기반으로 민간 차원의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지역사회에서는 기록물을 5·18기록관이나 5·18기념재단 등 광주의 관련

기관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5·18진상조사위 청산팀이 여제를 마지막까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에 방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기록물은 마무리하면서 이전 이관할 주제마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5·18 기록물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데 광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와 국회 동의를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재가를 얻지 못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광주 이관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5·18진상조사위가 활동을 마친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민간 차원의 후속 연구를 통해 진상규명 등 미흡한 5·18의 핵심 정점을 밝혀내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있을 경우 접근성의 문제와 관심 부족으로 기록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5·18 기록물이 제자리인 광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

종교칼럼

믿음은 지혜의 샘이자 긍정적 사고의 바탕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식민통치를 자초한 어리석음으로 주저앉게 된 것이 그 한 사례다.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좌(左)와 우(右), 보수와 진보, 친여(親野) 친야(親野)의 견해가 각각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 맹목적 편견으로 집착하는 것은 모두 맹신병, 불신병에 감염된 상태다. 한쪽에 대한 맹신병이요, 한쪽에 대한 불신병이다. 이병에 걸리면 좋은 사람 나쁜데 없고 나쁜 사람 좋은데 없거나, 미운 사람 예쁜데 없고 예쁜 사람 미운데 없거나, 이쪽은 다 옳고 저쪽은 다 그르다는 편견에 빠진다. 여기에 걸려들면 합리 지혜는 마비된다. 결코 합리로 성숙해가는 국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지혜, 합리적 세계로 벗어날 기약마저 없게 된다.

편견은 지혜를 사정시키는 무덤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상이라 하여 불자(佛子)가 불법(佛法)에 집착하여 묶이는 것조차 맹타(猛打)하여 부정한다. 오직 합리에 근거한 믿음이라야 바로 지혜를 생산해 내는 샘이 된다. 합리에 근거한 믿음은 긍정적 사고의 바탕이다. 불신하는 것을 긍정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의 속성이다. 따라서 믿음이 가는 쪽으로 긍정적 견해가 기우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이치의 속성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사고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모든 현실 속에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며 뒤범벅이 되어 있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의 혼재 속에서도, 역량 있는 사람은 9할의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 1할의 가능성을 찾아 다듬고 키워

서 나머지 불가능한 9할도 가능으로 바꾸어 일을 성공시켜 간다. 역량이 미치지 못하면 9할의 가능한 여건 속에서도 1할의 불가능 요소를 부각시키고 키워서 나머지 9할도 불가능으로 바꾸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거나 실패하고 만다. 그러므로 긍정 요인만 찾아 활용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노력과 전진이 있으며,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지만, 반대로 부정 요인만 찾아 주저앉은 사람은 노력이 없고 전진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가능한 것도 불가능으로 바꾸어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다.

이와 같이 부정적 사고 속에서는 긍정적 요인이 매몰되어 놓여나고 긍정적 사고에서는 부정적 요인이 매몰되어 놓인다. 각각의 모든 현실 속에 어찌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 요인이 없겠는가. 여기에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우리를 혼란하게 한다. 다만 이속에서 긍정적 요인을 찾아 키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 요인을 찾아 주저앉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모두의 몫이다. 어떠한 자세가 현명한 판단인가? 이에 대한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답이 있지 않은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부정적 생각을 일단 접어두고 긍정적 요인만을 찾아 나선다면 반드시 거기에 길이 있을 것이다.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 상황으로 바꾸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적 사고는 만사 성공의 어머니다. 이러한 긍정적 사고가 모두 이 믿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함장(含藏)하고 있는 것이며 가지고 살아갈 방향인 것이다.

기고

광주 아트페어, 수요 공급의 균형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거보다 더 커졌다. 수요가 증가한 원인은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부유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재화의 생산량이 부족 증가하면서 부가가치도 높아져서 대한민국의 국부가 엄청나게 커졌다.

광주에서도 지난 2010년 광주 아트페어가 탄생했다. 기획전 위주인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열리는 아트페어가 광주 미술시장의 열기를 올려놓고 있다. 벌써 15회차다. 올해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어 미술애호가들을 손짓하고 있다. '함께하는 미술시장, 사랑받는 미술축제'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아트페어는 광주문화재단이 2011·2012년에 이어 12년 만에 주관하게 되어 그 의미가 깊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10개국의 106개 국내의 갤러리 부스와 7개 특별전 부스를 포함한 총 113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금산갤러리와 갤러리 조진, 갤러리 그림손 등 국내의 우수 갤러리도 참여하여 아트페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트페어는 미술시장이다. 모든 재화가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듯이 미술품도 마찬가지다. 시장은 인간의 영역이면서도 다수의 거래자들이 참여하는 곳이기도 공공의 성격도 지닌다. 따라서 가격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 공정성은 시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지켜야 한다. 미술품을 다루는 아트페어에서도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아트페어의 판을 잘 짜고 균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품 거래시장인 아트페어는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하나의 목표가 있다. 미술품 거래를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아트페어에서도 유효수요를 끌어들이고 좋은 작품으로 전시하도록 훌륭한 갤러리가 모여서 4일 동안 활발한 시장을 만들어주고 준비하고 있다.

비엔날레가 예술계 혁신과 새로운 창작의 흐름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트페어는 미술품을 거래하는 시장 형성이라는 다른 측면에 중점을 둔다. 12년 만에 다시 광주문화재단이 아트페어를 주관하면서 그 점에 집중하고 있다. 특별전과 부대행사도 준비한다. 오늘날 미술시장에서 주목받는 쿠사마 야요이, 키스 해링, 오승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컬렉션_프로포즈전'과 뛰어난 젊은 지역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후원 체계를 구축하는 '청년작가발굴_라이징스타전' 등이다. 부대행사 'PSR(Private Showing Room)'에서는 근현대 미술화가 아우환, 박서보, 정상화, 박수근 작가의 작품들이 다양한 관객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아트광주는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지역 미술계를 견인하는 쌍두마차다. 지역 미술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부담 없이 방문하여 관람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하나 사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큰 작품이 아니라도 좋다. 작품을 집에 걸어두고 볼 때마다 좋은 느낌과 사랑스런 마음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아트광주 24'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활발한 시장으로 자리잡고, 멋진 작품들을 많이 전시하여 시민들을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다.

無等鼓

10년 전 가을 서건창에게 "고향에서 새로운 기록을 이룬 소감"을 묻은 적이 있다.

그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선수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묵묵한 표정으로 "실감이 안 난다. 우상이었던 선배와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고 답을 했다. 당시 넥센 소속이었던 서건창은 10월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KIA를 상대로 안타를 추가하면서 광주일고 선배 이종범의 '196안타'를 넘어 최다안타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이후 남은 3경기에서 4개의 안타를 추가하면서 '꿈의 200안타'를 넘어 201안타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또 서건창은 최종전에서도 홈런이 성공하면서 '135'라는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남겼다. 육성선수로 사연 많은 출발을 했던 '잡초' 서건창은 '야구 천재'의 이름을 지우고 이해 리그 MVP로 등극했다. 10년 후 그는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베테랑 선수가 됐다. 2024년 가을, 다시 서건창에게 질문을 던졌다. "새로운 기록을 지켜본 소감은?"

서건창은 이번에는 자신의 기록이라도 되는 듯 상기된 표정으로 "실력 있는 선수

가 잘해서 기록을 깬 것이다. 축하한다. 대단하다. 앞으로 어떤 역사를 세워나갈지 기대된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23일 삼성전에서 KIA의 1번 타자로 나선 김도영은 첫 타석에서부터 벼락같은 스윙으로 답답을 냈었다.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홈에 들어온 김도영은 서건창이 지켜보는 앞에서 '136득점'이라는 새 기록을 만들었다. 다시 한번의 '196안타'를 넘어 최다안타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정 못하는 느낌이다"고 떠먹는 소감을 말했다. 서건창이 135득점을 만든 2014시즌에는 9구

단 체제 128경기가 열렸다. 144경기 체제, 136번째 경기에서 기록을 세운 김도영은 서건창에 대한 존경심을 이야기했다.

스타 선수 출신의 이범호 감독부터 최형우, 양현종, 나성범, 김선빈 등 리그를 대표하는 정쟁한 선수들이 포진한 KIA.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KBO리그의 기록이 된 서건창과 김도영까지 '팀'으로 하나가 돼 만든 승리와 기록이 KIA의 정규 시즌 우승을 완성했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清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 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 예 향 부 220-0692 | 기 획 관 리 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 여 론 매 체 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 사 진 부 220-0693 |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 디 지 털 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